

박서원 시에 나타나는 부정의 멜랑콜리와 그로테스크의 양상

이은영*

차례

1. 서론
2. 죽음과 상실의 멜랑콜리
3. 죽음을 바라보는 그로테스크한 대상
4.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부정성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990년대의 한국현대시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의 시선을 드러낸 대표적 시인인 박서원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부정성을 멜랑콜리와 그로테스크적 표현양상에 연결시켜 논의하였다. 멜랑콜리는 대상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리비도가 자아로 향하는 상태다. 시인의 멜랑콜리는 이러한 상태를 삶에 대한 환멸과 부정의식으로 그로테스크하게 표출한다. 이런 점에서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수사가 지니는 의미는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박서원이 추구한 멜랑콜리적인 죽음과 부정의식이 그로테스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로테스크한 멜랑콜리의 표현은 박서원의 대상상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한다. 죽음의 포즈만이 있을 뿐, 상처의 근원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인의 대상상실은 사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랑에 대한 욕동과 그것의 상실이다.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탐색은 시인이 나를 타자화한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에 대한 죽음의 욕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멜랑콜리적 자의식 속에 드러나는 공포와 불안한 자의식을 보여준다. 자신의 주체성이 대상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박서원의 시는 멜랑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멜랑콜리의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핵심어 : 박서원, 멜랑콜리, 그로테스크, 죽음, 불안, 여성시

1. 서론

박서원은 1989년 잡지 《문학정신》에서 「학대증」 외 7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등단 다음 해 시집 『아무도 없어요』(열음사, 1990)를 냈고, 『난간위의 고양이』(세계사, 1995), 『이 완벽한 세계』(세계사, 1997), 『내 기억속의 빈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세계사, 1998), 『모두 깨어있는 밤』(세계사, 2002)을 냈다. 2002년 마지막 시집을 낸 이후 그녀의 소식은 2016년에야 죽었다는 말로 문단에 전해졌다. 박서원은 2012년 5월 10일 죽었다.¹⁾

박서원은 시집 『아무도 없어요』를 비롯해 발표한 일련의 시편들에서 1990년대 한국현대시사에서 주목할 만한 도발적인 여성의 시선을 드러낸 시인이다. 1980년대까지의 여성시가 여성의 삶이 남성 중심적 사고에 의해 어떻게 제한적이고 억압적인가를 보여주는데 주력했다면 1990년대 이후의 여성시들은 과거에 비해 여성정체성, 여성의 언어에 대한 탐색과 물

1) 『경향신문』은 2017. 5. 23일 기사 “박서원 시인 2012년 쓸쓸한 죽음…문인들 아무도 몰랐다”를 통해 1990년대 한국 여성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한 여성 시인의 고독한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평하며, 박서원 작가의 유족에 따르면 시인은 2012년 5월10일 오후 별세했다고 전했다. 시인의 나이 52세 때였다.

음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²⁾ 1990년대의 시가 시적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리고 그것의 재구축³⁾의 선상에 있는 것과 함께하는 변화의 징후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여성시는 억압된 여성으로서의 삶과 경험을 다양하고 개성적인 글쓰기⁴⁾로 생산해내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90년대 여성시의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서원의 문제의식은 주로 ‘죽음’과 ‘불안’, ‘환상’이다. 황현산은 박서원의 『난간위의 고양이』에서 일종의 영웅주의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시집 전편에는 삶에 대한 욕망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고통, 여성의 자존심이 표현되는데, 이를 통해 박서원의 여성주의는 강인하고 씩씩한 것으로 보여진다⁵⁾는 것이다. 한편 황현산은 또 다른 평론에서 박서원의 죽음을 기리며, 박서원의 시는 온갖 종류의 불안과 초조감이 시인의 긍지로 나타나는데, 시인의 상처와 불행이 새로운 재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난간위의 고양이』, 『이 완벽한 세계』는 “가장 어둡고 가장 황홀했던 길의 기록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⁶⁾고 평가하였다.⁷⁾

김승희는 박서원의 시를 아버지의 상징질서를 뒤흔들고 교란시키는 여성주의 시의 범주로 분류하고, 박서원의 시는 무의식을 “언어의 세계로 끌어들이며 억압된 욕망의 위장된 성취를 쓴다”고 말한다. 그녀의 시는 광범위한 음악성과 무의식의 자유연상 등이 텍스트 생산에 관여하여 초현실적 자동기술로 리드미컬한 언어, 환상성, 모순어법, 무정부주의적 환상을 드러내는데, 무정부주의적 환상은 모든 여성주의 시인들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지배담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내가는 박서원 시에서

2)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90년대 이후의 한국 여성 시인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08-309쪽 참고.

3)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534-535쪽 참고.

4) 정끝별, 앞의 논문, 309쪽.

5) 황현산, 「여자의 말 여성의 목소리」, 『창작과 비평』 24(1), 창작과비평사, 1996. 432-441쪽.

6) 황현산, 「박서원을 위하여」, 『문예중앙』 147, 중앙북스, 2016. 272쪽.

7) 위의 책, 257-272쪽.

의 여성성은 더욱 전복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⁸⁾

이문재는 박서원이 제시하는 ‘이 완벽한 세계’는 당혹스러운 세계라고 말한다. 시인이 꿈꾸는 완벽한 세계는 따뜻한 몸을 희구하는 자아와 자학하는 자아 사이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보며,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자기 재생의 모티프가 흐른다고 평가한다.⁹⁾

김수이는 박서원을 김승희와 함께 90년대 여성시인의 특성으로 묶어, 그 중 ‘뱍’과 ‘안’의 역학, 자기 해체의 열망과 파괴된 자아의 회복을 드러내는 시인으로 논의한다. 논자는 박서원이 김승희에 비해 ‘뱍’을 향한 욕망이 과격하고 일탈적이라고 본다. 그녀의 시에는 유린당한 자의 모멸감과 그로부터 헤어나고자 하는 비원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¹⁰⁾

박서원 시의 평가에 있어 황현산과 김승희, 이문재, 김수이의 견해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박서원의 시가 드러내는 불안과 환상은 시인 자신이 느끼는 억압을 뛰어넘기 위한 회복의 장치라는 것이다. 박서원은 꿈과 무의식의 언어 속에서 자신을 치유해 나갔는데, 이는 자신의 상태를 넘어서 새로운 생성을 위한 길을 열어간다. 이 길에서 박서원은 자신을 압도하는 불안과 자해를 드러내고, 혼란과 파괴된 자아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그녀가 보여주는 혼란과 상처는 자기주체성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다. 본고는 이러한 그 동안의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서원 시의 부정성이 드러내고자 하는 언술 전략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서원의 시에는 죽음과 멜랑콜리에 대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박서원의 시에 드러나는 멜랑콜리의 감정들은 시어의 표면적인 차원

8)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35쪽-166쪽.

9) 이문재, 「서평 <아버지와 딸>들-세계와 맞서는 세 가지 형태- 나희덕 시집 『그곳이 멀지 않다』/이경림 시집 『시절하나 온다, 잡아먹자』/ 박서원 시집 『이 완벽한 세계』, 『작가세계』 10-1, 세계사, 1998, 360-367쪽.

10) 김수이, 「상처받은 타자에서 진정한 주체로-90년대 여성시의 몇 가지 층위」, 『환각의 칼날』, 청동거울, 2000, 46-71쪽.

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멜랑콜리의 문제가 부정성의 구도와 결합하여 있고 나아가 부정성을 회복하려는 자기주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박서원의 시에 나타나는 멜랑콜리의 언어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박서원의 시에서 멜랑콜리를 드러내는 표현은 그로테스크하다. 그로테스크는 정신적 차원의 소외와 공포를 드러내기에 시인의 부정성을 나타내는데 있어 적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멜랑콜리(Melancholie)는 어떤 대상을 상실한 반응으로 고통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중단을 가져오고 자아에 대한 상실감을 보인다. 멜랑콜리의 특성은 미래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심리상태다. 슬픔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리비도라는 것이 잠시 멈춰 다시 삶의 원칙으로 향하기 위해 잠깐 동안 수렴기능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멜랑콜리는 이 에너지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다. 미래가 사라져 버리고 과거로만 향해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희망도 투사도 위안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불가능한 상태가 죽음충동으로 만나 옛날에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이 멜랑콜리다. 이러한 멜랑콜리의 상태는 일체의 어떤 의미, 희망, 동경을 인정할 수 없는 시선이다.¹¹⁾

박서원의 시는 이러한 상실의 멜랑콜리를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보여준다. 그로테스크는 원래 고대 로마의 그로테(grote: ‘동굴’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일종의 장식, 즉 사람과 식물, 동물의 신체 일부가 서로 결합되어 뭉쳐있는 기괴한 형태의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¹²⁾ 그로테스크는 부조리, 기묘한 것, 섬뜩한 것, 풍자적인 것 등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바흐친은 끔찍스러움, 잔인함, 역겨움에 대한 가학적 쾌락을 그로테스크 개념으로 삼고 있다. 바흐친은 카니발 자체가 ‘더할 나위없는’ 그로테스크 행사로 과도하고 난폭하게, 본질적으로는 유쾌하게 찬양한다.¹³⁾ 그

11)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재판), 윤희기 역, 열린책들, 2014, 243-265쪽 참고.

12) 필립 톰슨, 『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6-17쪽.

13) 위의 책, 77쪽.

로테스쿠가 존재의 끄적스럽고 역겨운 면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거기에 희극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해로움을 덜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바흐친과는 달리 카이저에게 그로테스쿠는 생경해진 세계이다. 생경해진 세계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것이 급작스럽게 낯설고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세계가 어떤 변화를 거친 것이다. 갑작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은 그로테스쿠의 본질적 특징이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껏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세계에 대한 신뢰가 허상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전율은 크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변해 버린 세계에 머물 수 없음을 느낀다. 말하자면 그로테스쿠의 핵심은 삶에 대한 공포이다. 일상적인 삶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로테스쿠의 구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영역들이 뒤섞이고, 사물의 정체가 불분명해지는가 하면 자연스러운 비율이 왜곡되기도 한다. 그로테스쿠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형놀음이자 우스꽝스러운 마리오네트 극으로 보는 냉정한 시선이다.¹⁴⁾ 육체적인 차원의 웃음과 해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공포를 제공¹⁵⁾하는 것이다.

박서원의 시에는 유머러스한 민중적 해학의 그로테스쿠가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는 그로테스쿠가 드러난다. 본고는 박서원의 시를 지배하는 멜랑콜리와 그로테스쿠의 표현들을 통해 그의 시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중심이 무엇인지 추출해 보고자 한다. 멜랑콜리와 그로테스쿠한 표현을 중심에 두는 시세계를 통해 그녀가 집요하게 탐구하고자 한 궁극적 관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14) 볼프강 카이저,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쿠』, 이지혜 역, 아모르문디, 2011, 303-306쪽.

15) 이를 이재복은 ‘모더니즘적인 그로테스쿠’라 분류하고 있다. 이재복, 「한국현대시와 그로테스쿠」,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009, 453-481쪽.

2. 죽음과 상실의 멜랑콜리

1시집인 『아무도 없어요』에는 죽음에 대한 감정의 수사가 반복된다. “시체처럼 파먹혀들어가는 하늘”(「안구회전증」), “나의 휴대폰 자살기도를 들추어내고”(「발작2」), “마른 내 뼈를 씹다가”(「탈혼」)와 같은 죽음의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박서원 시의 지배적 정조인 ‘죽음’은 박서원 시의 전작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시인의 멜랑콜리적인 의식을 표상한다.

꿈을 데가 필요하십니까
물론 만발한 꽃은 없지만
에나폰
트리민
디아제팜 따위는 있습니다
한 번 입원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여긴
물론 당신의 꿈이나 여행을 팔지는 않지만
신선한 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면증은
눈이 멀어도 볼 수 있는
수정(水晶)의 나라
곡식들이 자라나진 못하지만
만져보면 당신의 친구가 되는
얼음의 등불이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물론 병원엔
늘 휘황한 거리와 음악은 없지만
늘 당신이 꿈꾸는 어여쁜 죽음이
사방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두려워 마시고
당신의 영원한 병을 사러 오십시오

- 「병원·1」

이 시는 박서원의 1시집인 『아무도 없어요』에 발표된 시로, 시인으로서의 출발점에서 그의 멜랑콜리한 내면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시이다. 박서원의 개인사적인 정신병의 기록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멜랑콜리의 내적인 원인은 파악할 수 없다. 시적 화자는 ‘병원’이라는 격리된 사회적, 제도적 공간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자로서의 불안정함을 경험한다. 정신병원 안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 이중적이면서 복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병원을 “한 번 입원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곳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어여쁜 죽음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바라보아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선을 표출한다. 화자는 자기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절망감은 시적 화자가 위치해 있는 정신병원의 “에나폰”, “트리민”, “디아제팜” 등의 약물의 이미지를 통해 잘 나타난다.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인 약물들의 이미지를 통해 “신선한 병”은 얼마든지 있지만 꽃도 피어나지 못하고 곡물도 자라나지 못하는 생명성이 부재한 곳에 있는 자신에 대한 유쾌감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어여쁜 죽음”에서 보이듯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폐허의 상태에 있는 화자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 직전에서 헤매야 한다는 것에 비애감을 토로한다. 화자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간 속에 고립되어 있다. 화자에게 병원에서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멈춰있는 “불면”의 시간인 까닭이다.

파랗게 파랗게
죽어 가거라
내가 잠드는 베개의 채취
어제 오후에 산 양산, 구두, 핸드백
살아나는 모든 것들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1년간 가졌던 정사
거기에 퍼렇게
곰팡이는 피어 나거라
하루 종일 씹은 껌, 도시의 빌딩
봄이 내리는 길 위에
내가 밟고 가는 자리마다
고통은 춤을 추어 기쁘게 하거라
나 자신도 모르는 비밀
나도 모르게 나를 말리는 비밀
살아서도 살지 못하고
다만 우울의 향기에 취해서만
힘을 얻는 내장
거기에 피어나는 것들이란
씻어도 씻기지 않는 환상
고통은 절정을 이루어라
가끔씩은 명상 속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나의 육체에게도
퍼렇게 퍼렇게

독은 피져 죽어 가거라

- 「학대증·1」

그렇기에 삶에 대한 환멸과 부정의식은 “살아서도 살지 못하고, 다만 우울의 향기에 취해서만 힘을 얻는”다는 구절에서 보이듯이 자기 파괴에 대한 탐색을 계속한다. 화자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 속을 끊임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화자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화자에게 포착되는 자신의 모습은 멜랑콜리커의 모습으로서 현실과 유리되어 곱팡이만 피어나는 모습이다. 화자는 “1년간의 정사”가 나타내듯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했던 추억을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사랑도, 화자가 있던 도시도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여기서 화자는 “나도 모르게 나를 말리는 비밀”이라는 자신에 대한 자조와 냉소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절정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기 부정의 극단성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자기 부정 속에서 화자는 “나의 육체에게도” “독은 피져 죽어 가거라”라는 자기 파괴와 파멸의식을 드러낸다. 시적 화자의 부정의식은 자기에게로 향해 자신을 공격하여 죽음을 욕망하는 것이다. 멜랑콜리커는 자아가 빈곤해지기에 자신의 심리적 정황을 스스로를 비난하여 말한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비난에 처한 화자의 모습은 멜랑콜리의 증후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자기 부정의식 속에 자리 잡은 자기 응시의 시선을 부각한다. 시적 화자는 화자의 시선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화자는 “가끔씩은 명상 속에 새로이 태어나는 나의 육체”와 같은 자신의 본래적인 내면에 갖고 있던 자신에 대한 기억, 또는 자신의 이상향을 자기비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자신의 준거기준 속에 비친 현재의 화자의 모습은 “니코틴이 쌓인 머리를 털며”(「병·1」) “수면체가 떨어져”(「변명」) “신경증에 시달”(「한 달」)리는 자아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주체 안에 자리하는 멜랑콜리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 아닌 자아에 대한 상실감을 보인다. 멜랑콜리적 주체인 화자는 “죽어 가

거리”는 모순어법으로 자아가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단정적으로 인정¹⁶⁾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죽음을 바라보는 그로테스크한 대상

박서원의 시들은 대개 일인칭 화자의 고백적 언술로 이루어져 있다. 박서원의 시가 드러내는 시선의 중심에는 거의 대부분 일인칭 화자로서의 ‘나’가 시적 주체를 발견해나간다. 시인의 시선은 일인칭 화자인 ‘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화자는 멜랑콜리에 침몰한 시적 주체를 대상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대상과의 거리를 통해 획득한 감각을 보여주려 한다. 이럴 때 박서원의 시는 그로테스크하다.

마른 수수깡과 헛간의 외로운 손전등이
말 똥오줌으로 얼룩진 짙을 되새김질하며
비웃는 줄도 몰랐다

어둔 밤, 겨울 나기는
얼어붙은 펌프에 젖은 장작으로
불 피워 물 마시는 일

그럴수록 하늘은 단풍잎 같은 별들을

16) 우울증 환자는 자아가 빈곤해져 스스로를 비난한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우울증 환자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 아닌 자아에 대한 상실감을 보인다. 우울증 환자의 자기 평가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아가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단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다. 우울증 환자의 자기비난은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비난인데 환자 자신의 자아로 돌려진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53-255쪽 참고.

검게 죽어가는 전나무에 매달아
까마귀는 몇 날이고 몇 날이고 머물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한적한 강변을 지키기에 시들해진 갈대나
다리와 목이 짧아지고 싶은 타조와 홍학
뒤집혀서 버둥거리다가 태양이 쏟아내는 홍수에
벼룩이 되고 싶은 장수거북이
이런 이름은
저승의 방명록엔 돌돌 말린 철사로 기록되었다가
한 생명이 관뚜껑에 못박힐 때
모래밭에서 무수한 새끼게들로 부화하여
파도가 잘게 잘게 부수어놓은 바위 틈마다
연꽃의 젖은 불을 피워놓는다

죽음의 신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눈 오는 북쪽나라를
어갯죽지 다친 갈매기 되어
열심히 항해하는 것이었다

- 「죽음의 신들에게 인심을 잃었다」

이 시는 박서원의 죽음에 대한 희구와 결핍의식이 자연물인 시적 대상에게 기대어 표현되고 있다. 첫 행의 “마른 수수깡과 헛간의 외로운 손전등”부터 그러한 시인의 태도는 드러난다. 시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희구의 감정을 생명성을 잃어가는 것들로 나타낸다. 시인은 자신의 멜랑콜리적 태도를 죽어가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와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박서원은 “죽어가는 전나무”, “목이 짧아지고 싶은 타조와 홍학”, “벼룩이 되고 싶은 장수거북이”, “어갯죽지

다친 갈매기”로 시인의 멜랑콜리를 대상화한다. 부정적인 태도로 자연물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는 생명성을 가진 타자와 생명성을 가진 타자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본다. 화자는 “죽음의 신에게 신뢰를 얻으”려 하는 욕망을 생명성 있는 것들과 접촉하면서 보여준다. 화자는 “열심히 항해하”여 죽음에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죽음과 시적 화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생명의 “부화”가 가로놓여 있다.

이 시에서 자연물들은 생과 사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회구로 들끓는 시적 화자의 멜랑콜리한 자아를 드러낸다. 시인은 자연물들을 통해 자신을 타자화시킴으로써 타자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박서원의 멜랑콜리를 드러내는 시들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타자화된 대상은 그로테스크하게 나타난다.

육조에 뜨거운 피가 흘러넘쳐 거실
계단까지 불태우고 있다
같은 네 몸을 안타까이 사모해
송이버섯 같은 애무의 흠집을 가하고 가하고
애무가 짙어가면 갈수록
네 영혼은 은박지가 구겨져 빛나는
밤하늘 사이사이 잎새들 다람쥐 별의
먹이가 될 것이다
혈관이 네 몸을 비워
온 집안을 뜨거운 피의 불로 물들일 때

- 「독방·2」 부분

여자의 시체는
바위틈새에서 수포처럼 하늘거리고
순한 햇빛은 낮이 되어
알몸을 토막내고 있었다

계곡은 흐르는 물수창

봉분 같은 유방이
난 아직 처녀라고
뼈끔뼈끔 보이지 않는 독수리 등지에
고백했다

재빠른 물살에 펄떡거리며 솟구치는 송어떼
물장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정이 돈독해진 낚시꾼들

(중략)

낚시꾼들은 각자 집에서 송어구이 파티를 하고
늦은 밤 침대 속에서 아내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살이 참 하애」

- 「조물주의 슬픔1- 솟켓, 낚시꾼」 부분

이 시의 화자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을 타자화 하여 화자가 갖고 있는 멜랑콜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타자화한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의 특성과 모습을 예리하게 지각하는 화자의 시선은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더욱 밀착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자는 대상을 바라보며 그 풍경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을 통해 간접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죽음의 장면들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로 묘사된다. 이 시들에 나타난 대상들은 끔찍하고 흉물스럽다. 「독방·2」는 “네 몸”에 대한 부정 의식과 혐오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네 몸”은 “피가 흘러넘쳐” “흙집”이 난 상태로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뜨거운”, “애무”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와 같은 촉각적 이미지는 흠집, 뜨거운 피, 물들임으로 변화하여 화자가 바라보는 “네 몸”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생경한 그로테스크로 그려낸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몸은 구체적인 경험과 느낌에 의존한 촉각을 통해 자아와 대상을 서로 밀착시키게 한다. 하지만 박서원의 시에서 촉각은 대상을 낯설고 섬뜩하게 다가오게 해 타자화한 대상을 기괴한 풍경으로 변형시킨다.¹⁷⁾ 이로써 모든 행위는 생경해진다. 타자화한 대상인 ‘네 몸’과 화자는 더욱 가깝게 밀착되어 그 감각의 점점에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대상을 통해 간접화된 화자의 모습은 파괴적 충동 앞에 무기력한 추락과 침잠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물주의 슬픔1- 솟컷, 낚시꾼」의 “여자의 시체”는 생명을 지녔던 인간의 훼손된 부분을 부각시켜 시각적으로 사물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한 효과를 나타낸다. 죽은 시신을 생명 있는 유기물로 변화시켜 시체를 수포처럼 하늘거리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럼으로써 이차원의 시신을 햇빛을 통해 삼차원의 공간 속으로 결합하여 기이함과 기괴함의 풍경 속에 부조화의 원리를 드러낸다. 시체는 봉분 같은 유방을 드러냄으로써 변형된 기괴한 여성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 결과 화자가 접한 외부세계의 비정상적인 육체성과 스산함을 표현해 낸다. 화자가 접한 세계의 이러한 괴기스러운 친숙하지 못한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이로써 비정상적인 것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그로테스크한 공포와 경악을 통해 실재와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¹⁸⁾ 화자의 자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화자는 마지막 행에 나타나는 낚시꾼의 시선을 통해 여성의 육체를 성

17) “그로테스크는 생경해진 세계이다. 생경해진 세계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것이 별안간 낯설고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볼프강 카이저, 앞의 책, 303-304쪽 참고.

18) “그로테스크에 대한 고전주의자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던 반응인 재미와 혐오, 유쾌함과 불쾌함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정도를 지나게 되면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로 바뀐다.” 필립 톰슨, 앞의 책, 31-33쪽 참고.

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표상한다. 남성적 욕망으로 대상화된 여성의 육체를 낚 것 그대로 가져와 물화시킨 것이다. 이 시에서 타자로서의 몸은 시체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됨으로써 남성의 시선으로 대상화된 여성의 몸이 가진 억압과 그로 인해 “봉분 같은 유방”안에 갇힌 여성의 육체가 가지는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하여 그 결핍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을 분열된 여성의 육체를 통해 나타내어 화자의 멜랑콜리를 읽을 수 있게 한다.

4.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부정성

이러한 자아 상실의 멜랑콜리는 내면의 모순을 직시하기 위한 고투의 결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을 보인다. 화자는 불안정한 주체로서 계속해서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삶을 보여준다. 이러한 처참한 자기 공격을 초래하는 멜랑콜리는 주체가 잃어버린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선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멜랑콜리는 사랑하는 대상, 즉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리비도가 상실되어 대상관계가 깨질 때 발생한다. 멜랑콜리커의 리비도는 “그것이 처음 출발하였던 자아 속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대상을 포기한다.” “그렇게 자아로 도피를 해야 사랑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렇기에 저항할 힘을 지니지 못한 대상 리비도는 사라지고 자유로운 리비도는 자아로 들어가 자아를 포기된 대상과 동일시하는 데에만 기여한다. 포기된 대상의 그림자가 자아에 드리우고 자아는 대상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상실은 자아상실로 전환한다.

앞서 논의했던 박서원 시의 지배적 정서인 ‘죽음’과 ‘상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로테스크’는 그의 멜랑콜리한 정신적 정황을 드러

19)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64쪽.

낸다. 그리고 박서원의 시적 화자가 드러내는 멜랑콜리의 주된 원인은 사랑의 상실로 나타난다. 사랑에 대한 욕동과 그것의 상실에 따른 멜랑콜리의 정서는 박서원 시가 드러내는 부정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상실에 따른 모티브가 멜랑콜리의 운명에 던져진 시인의 비극성을 표상하는 것인데, 상실된 대상을 향한 리비도가 자아에게 돌아오며 자신에 대한 부정성과 자기 비하감에 따른 자아 분열을 부정적인 시적 화자의 모습으로 표상한다.

더 오래 쇠사슬과 금기를 가지고
당신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면 방의 불빛들이
봄 잎새들을 찌르고 흘러들어올 때
내가 두꺼비인 줄 알아 차마……

아주 떠나야 할 것 같지만
당신을 당신의 자유로 보내주어야
할 것 같지만
훤한 내가 사랑하는 당신
내가 빚어놓은 세계는

어떻게 할까요.

(중략)

더 오래 오래 절망과 도망침으로
당신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꺼비가 되어 행복이 두려운 두꺼비
그토록 목이 쉰 두꺼비가 되어
끝까지.
끝까지.

- 「목이 쉰 두꺼비가 되어」 부분

박서원의 시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은 사랑에 대한 부정적 요소에 사로잡혀 사랑의 대상에 대한 결핍과 부재에 내몰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박서원 시의 화자가 드러내는 사랑은 결핍,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만을 바라본다. 그리하여 박서원 시의 화자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자아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는 멜랑콜리²⁰⁾의 과정으로 진입한다. 바로 그것이 박서원 시의 빈곤한 자아가 가진 상처의 근원인 것이다.

내일 아침엔, 사랑은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더 깊숙이 숨으리라
 밖으로 나와 창틀에 끼여 죽은 애벌레가 되리라
 - 「은밀한 것들이」 부분

살,
 연분홍 혹은 갈색
 나는 갈망한다
 불타오르는 바다처럼
 날생선을 통째로 씹으며
 갈망한다, 뜨겁고 새로운 살
 고독을 통닭으로 삼을 수 있는 음탕한 살,
 - 「사랑에 관한 단상」 전문

이 시들 또한 빈곤한 화자가 가진 자아 상실의 원인이 사랑의 대상 상실임을 드러낸다. 여기서 사랑에 대해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복합적이

20) “우울증은(…)꼭 필요한 타인의 상실에 의한, 말하자면 타인과 지금 막 분리된 연약한 자아 위에 드리운 그림자이다. 이는 절망의 그림자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역, 동문선, 2004, 16쪽.

다. 화자에게 사랑은 “죽은 애벌레가 되리라”는 부정적인 태도와 “음탕한 살”이 보여주는 육체의 욕망을 병존 시킨 대상인 것이다. 위의 두 시에서 “사랑”은 화자에게 있어 “더 깊이 숨”거나 “창틀에 끼어 죽”는다는 구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자신이 상실한 대상과 멜랑콜리적 동일시를 보여주는 세계이고, 동시에 “갈망”하는 “살”의 육체성이 “뜨겁게” 열락으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다. 화자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상실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화자의 감정은 모순되는 것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결핍한 것에 대한 욕망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화자의 상실한 대상에 대한 리비도는 다른 대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자신의 “고독”을 회복하기 위한 자아에 머문다. 화자의 사랑에 대한 상념과 비애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직시하는 고통과 치열하게 부딪치며 결핍한 것에 대한 욕망과 함께한다. 그렇기에 그 복합적인 시선은 자신의 내면의 모순을 드러낸다.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도가 아닌, 자신에게 리비도가 향하는 멜랑콜리적 동일시의 양상인 것이다.

결국 박서원의 시에 나타나는 죽음의 시선과 부정성의 근원은 대상 상실로 인해 피폐해진 자아의 리비도가 자신으로 향하는 멜랑콜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그러한 멜랑콜리적 주체에 대한 부정의식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면서 그러한 주체에 침잠해 있다.

겨우 이제야 온 이곳
 북풍은 늙어가는 내 얼굴을 비취주고
 서풍은 흩어진 머리에 화관을 얹어준다
 내가 선택한 나의 겨울 이야기
 내 발자국에 들려주며
 아 고와라 나날들이여
 눈물숲에서 끝날 내 생애
 - 「나의 겨울」 부분

마지막 시집에서 화자는 자신이 상실한 것들, 상실해야만 했던 것들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바라보며 “겨울”의 이미지로 그려낸다.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자연의 세계이고, “내 얼굴을 비춰주”는 나르시시즘적인 환상의 세계이다. 화자가 향유하고자 하는 곳은 이루지 못한 자연의 삶과 평화다. 이와 같은 자연물의 형상은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희구를 통해 화자의 자기 긍정으로 향하는 듯하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삶을 “눈물숲에서 끝날 내 생애”로 표현한다. 이는 화자의 정신적 위축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의 불안의식과 존재적 고통의 절박함을 나타낸다. 이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의 열망에서 자신을 지켜내려는 상실의 몸부림인 것이다.

5. 결론

박서원의 시는 상실한 것에 대한 멜랑콜리의 양상을 형상화한다. 부정성과 죽음의식, 상실의식을 그로테스크하게 표출해 내는 것이다. 멜랑콜리의 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멜랑콜리적 양상은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수사로 계속해서 드러난다. 그러한 화자의 내면의 양상은 불확실한 자신에 대한 절망과 불안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긍정성과 죽음의 희망으로 내면의 폐허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삶에 대한 부정의식은 현실과 격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에 대한 자조와 냉소 속에 극단의 고통에 자신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드러내며 자기 파괴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박서원 시의 화자는 멜랑콜리적 증후인 죽음에의 욕망을 표출한다.

그러한 박서원 시의 표현은 그로테스크하다. 멜랑콜리에 침잠한 시적 화자의 모습은 그 스스로의 목소리인 1인칭 ‘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녀의 시에서 1인칭 화자인 ‘나’의 모습은 객관적인 대상을 통해 간접화하여 보여진다. 죽음에 대한 욕동과 자기 부정성을 시적 대상에 기

대어 표현하여 간접화하는 것이다. 이 때 간접화의 표현과 타자화한 대상의 풍경은 그로테스크하며 괴기스럽다. 화자는 대상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기에 화자와 대상 사이의 밀착성이 보인다. 풍경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자 하는 화자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간접화 하는 것이다. 이 때 화자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것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그로테스크적인 공포를 통해 파괴적 충동 앞에 무기력한 생경한 모습을 드러낸다.

박서원이 보여주는 자기공격의 멜랑콜리는 잃어버린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깨지면서 잃어버린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 자아로 들어갔던 것이다. 박서원의 시에서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은 상실에 대한 결핍과 결핍한 것에 대한 욕망을 동시에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순을 보여준다.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도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에게 리비도가 향하는 멜랑콜리의 과정인 것이다. 화자의 정신적 위축과 불안의식은 자신에 대한 부정성 속에 멜랑콜리하게 놓여 그로테스크한 공포와 죽음을 가체험한다. 박서원은 세계와 자아의 모순을 여성의 목소리로 구현하는데, 이를 멜랑콜리하고 그로테스크한 죽음의 풍경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박서원이 보여주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나 탈중심의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90년대 여성시사에서 미적 성취를 가늠할 수 있다. 박서원의 멜랑콜리적인 자기인식은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치열한 탐색의 결과로 한 개인의 암울한 삶을 전면화하면서 동시에 세계의 어두운 한 단면을 탐구한다. 그녀는 훼손되고 파편화된 삶의 단면들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그려낸다. 이로써 그녀는 1990년대 현실의 변화과정 속에서 한국 여성시의 시적 출구를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은 시인으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서원, 『아무도 없어요』, 열음사, 1990.
박서원, 『난간위의 고양이』, 세계사, 1995.
박서원, 『이 완벽한 세계』, 세계사, 1997.
박서원, 『내 기억속의 빈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 세계사, 1998.
박서원, 『모두 깨어있는 밤』, 세계사, 2002.

2. 단행본

- 김수이, 『환각의 칼날』, 청동거울, 2000, 46-71쪽.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534-535쪽.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역, 동문선, 2004, 16쪽.
필립 톰슨, 『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6-17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역, 열린책들, 2014, 243-265쪽.
볼프강 카이저,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지혜 역, 아모르문디, 2011, 303-306쪽.

3. 논문

-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35-166쪽.
이문재, 「서평 <아버지와 딸>-세계와 맞서는 세 가지 형태- 나희덕 시집 『그곳이 멀지 않다』/이경림 시집 『시절하나 온다, 잡아먹자』/ 박서원 시집 『이 완벽한 세계』, 『작가세계』 10-1, 세계사, 1998, 360-367쪽.
이재복, 「한국현대시와 그로테스크」,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009,

453-481쪽.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90년대 이후의 한국 여성 시인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07-336쪽.

황현산, 「여자의 말 여성의 목소리」, 『창작과 비평』 24-1, 창작과비평사, 1996, 432-441쪽.

황현산, 「박서원을 위하여」, 『문예중앙』 147, 중앙북스, 2016, 257-272쪽.

Abstract

The appearance of negative melancholy and grotesque in Park Seo-Won's poem

Lee, Eun-Young

This paper discusses the death and negativity of poet Park Seo-won, a representative poet who showed the remarkable women's gaze i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of the 1990s by linking it to melancholic and grotesque expressive aspects. Melancholy is a state in which the libido goes to self in response to the loss of an object. The poet's melancholy expresses this condition grotesquely with disillusion and a negative consciousness of life. In this respect, the meaning of the emotional rhetoric of death in Park's poetry is a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melancholic death and negative consciousness pursued by Park Seo-won in combination with the grotesque expressive aspect. The expression of grotesque melancholy allows us to see what causes Park's loss of an object. There is only a pose of death, and the origin of the wound is not revealed. However, if we look closely at her poem, the loss of the object is the desire for love and its loss. The search for grotesque expressions reveals the love of death for oneself, while at the same time seeing the poet as an object of others. Therefore, a grotesque expression shows fear and uneasy self-consciousness exposed in melancholic self-consciousness. In a situation wherein his subjectivity is subordinate to the subject, Park's poem shows the

status of melancholy as a subject unstable from melancholy and unstable as a member and an alien in real society.

Key words : Park Seo-won, melancholy, grotesque, death, anxiety, women's poetry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